

# 지역 인구 37년 새 80만명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대학생의 지역 잔류를 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 청년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 韓銀 '광주·전남 인구와 경제성장 간 관계 분석'

### 산업기반 취약·일자리 창출 부진 탓 청년층 잔류율 전국 최저...대책 절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8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인구와 경제성장간 관계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1970년대 이후 지속해 온 인구감소가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어디로 얼마나 빠져 나갔나>= 1970년에서 2007년 사이 광주·전남 인구는 41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광주는 65만명에서 145만명으로 늘었지만 전남은 345만명에서 189만명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2000년~2007년 사이에도 인구유출 비율(총인구 대비)이 8.0%로 전북(10.0%) 다음으로 높아 인구유출 지속세가 최근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유출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36%, 전남이 41%로 여전히 높았고 주로 구직을 위한 청년층의 이동이 많았다. 지역 내에서도 산업기반에 따라 유출정도가 달라 목포·광양·무안·신안 등 조선업과 철강업 등 산업기반이 조성된 곳과 담양 등 광주 인근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진·장흥·고흥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높았다.

<인구유출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심화와 고용부진이다. 2000~2007년 광주·전남의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은 각각 2.8%와 1.5%로 전국 평균(3.1%)보다 낮아 저조한 경제성장을 반영했다. 또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같은 기간 전남의 취업자 증가율은 -1.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고 전남의 청년층 취업자도 6.3%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고용부진이 청년층의 탈 광주·전남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 및 문화 인프라 부족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좋은 교육과 문화환경을 쫓아나온 전남지역 학생들의 지역 잔류율(지역내 상급학교 진학율)은 고교 진학시 84.1%와 대학 진학시 34.8%로 전국에

서 가장 낮고,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생의 정규직 취업률도 각각 49.4%와 43.5%로 타 지역보다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청년층의 유출은 소비는 물론 신규주택 매매 위축 등 수요기반을 약화시켜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대책은 없나>= 한은은 해결책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노동력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다.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젊은층의 취향에 맞는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육성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점에 비해 노동력 확충이 시급하며 퇴직자 재고용 및 취업알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올 김장 배추·무 생산량 30% 이상 ↑

## 전남지역 재배면적 늘어 배추 24만t 수확

올해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김장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김장 무·배추, 콩 생산량 조사'에 따르

면 올해 전남의 김장 배추 생산량은 24만4천8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6만9천657t)에 비해 44.3% 증가한 것으로, 전국 배추 생산량의 16.3%를 차지했다. 전남은 또 올해 김장 무의 생산량

이 9만9천453t으로, 지난해(7만4천770t)보다 33.0% 늘었다. 전남의 김장채소 생산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채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역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해 전국 농가의 김장 배추 생

산량은 150만5천t으로, 지난해(113만9천t)보다 3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충남(22만9천901t), 경기(18만8천917t), 충북(18만1천551t), 전북(17만4천614t) 등의 순이었다. 김장 무도 67만5천t으로 지난해(45만9천t)에 비해 47% 늘었다. 또 전북(13만6천876t), 경기(10만5천559t), 제주(10만573t) 등 상위 3개 도가 전체 생산량의 50.8%를 차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양 컨 배후단지 개장

광양 컨테이너 항만과 연계,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개발된 195만㎡ 넓이의 배후단지가 18일 개장했다. 지난 2003년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2004년 착공된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는 5년 동안 사업비 3천217억 원이 투입됐으며, 물류부지와 공원녹지, 업무지원부지, 상업시설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배후단지에는 25개의 국제적인 물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신규물류 창출과 함께 광양민권의 복합 물류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양항 배후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추가로 86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국프라임제약 15억 투자 유치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사진 왼쪽)은 18일 신용보증기금(호남본부장 이진서)으로부터 15억원의 투자유치를 약속 받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한국프라임제약 납입자본금은 19억5천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신용보증기금은 투자유치를 계기로 지분율 7.69%를 보유한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 김대익 대표이사는 "신용보증



기금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등을 평가한 뒤 한국프라임제약을 투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세 보증금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때 광주·전남 4만7천여가구 추가 혜택

정부가 최근 주택경매 급증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 소액보증금의 상향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액보증금의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높아질 경우 4만7천여가구가 전세금 보호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액보증금의 대상을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전남 등 지방 모두 6천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광역시와 지방의 소액보증금 기준이 현재보다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높아지는 것으로, 향후 보증금 보호 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광역시 5천만원, 지방 4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만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향조정될 경우 각각 2만2천44가구, 2만5천13가구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가보호를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만3천605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4만9천917가구) ▲전북(4만367가구) ▲충남(3만8천917가구) ▲부산(3만7천917가구) 등의 순이다. 한편 이번 소액보증금 기준 상향은 청와대가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제주시 전남 쌀 홍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직원들이 18일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주시 지역 유통인 30여명을 초청, 전남쌀 상품 설명회를 갖고 전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직원들이 18일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주시 지역 유통인 30여명을 초청, 전남쌀 상품 설명회를 갖고 전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유망 中 7개 업체 선정

광주시는 18일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7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포에프 ▲㈜한국에텍 ▲㈜골드텔 ▲㈜한진디엔비 ▲글로벌광통신 ▲㈜영신메디칼 ▲㈜전북금영 등이다. 광주시는 "기술 및 품질수준, 기술혁신 및 시책 참여도 등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선정일로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 세 일 글

### “지역 우량 中 發굴·지원 최선”

이 용 권 우리은행 호남영업본부장



“금융환경이 어렵지만 지역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용권(52) 우리은행 호남영업본부장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의 경우 경제위기의 여파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으로서 기업 지원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인 이 본부장은 광주상고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에서 호남기업금융지점장, 상무지점장, 하남공단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리첸 리치엔** RITCHEN

리첸 리치엔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3515-2222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www.aeyuliasia.com 062)671-1199